

## 1 개요

웃당본은 표선면 토산1리 토산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부름운님은 불효한 탓에 상자에 담겨 요왕황제국에 가서 신중부인과 혼인한 뒤 함께 돌아와 토산에 좌정하는데, 신중부인이 돼지털 냄새 맡은 것을 부정하다 하여 마라도로 귀양 보낸 뒤에 후처로 맞이한 새로금상이 요구로 신중부인의 귀양을 풀어주었다.

## 2 내용

송당 금백조와 소천국의 아들이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상자에 담겨 용왕국에 귀양을 당하였다. 상자는 물 아래 3년, 물 위로 3년 떠다니다가 용왕황제국 산호수 가지에 걸리자 깊은 밤중에 개가 짖었다. 용왕황제국이 세 딸을 보내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하니 막내딸만 상자가 걸려 있음을 알았다. 세 딸에게 상자를 내리게 하니 막내딸만 상자를 내릴 수 있었다. 세 딸에게 상자를 열라고 하니 역시 막내딸만 열 수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선관도사가 앉아 있었다.

선관도사는 송당의 셋째 아들로 불효한 탓에 귀양을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딸들 방으로 들라고 하니 막내딸 방으로 들어갔다. 갖은 음식을 차려도 아니 먹고 동침하지도 않고 처부모에게 인사드리는 법도 없었다. 막내딸이 황제국에 고하니 황제국이 까닭을 물었다. 선관도사는 좋아하는 술과 고기를 먹지 못하여 배가 고파 그렇다고 하였다. 황제국이 사위 하나 대접 못하겠느냐고 하면서 원하는 대로 음식을 차려주다 보니 창고가 다 비어갔다. 황제국이 막내딸을 불러놓고 남편과 함께 떠나라고 하였다. 황제국은 배를 내어 주고 주술 주머니를 내어주며 둘을 보냈다.

송당으로 들어가니 느진덕정하님이 죽으라고 던져버린 상전이 돌아온다고 일렀다.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니 믿지 않고 문을 잠가버렸다. 부름운님이 주머니로 부모 눈에 콩깍지를 들게 하니 눈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다. 문을 열어주니 부모에게 문안을 올렸다.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아내인 신중부인을 인사시켰다. 신중부인은 아기 일곱을 임태중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적에 분가한 아이라 함께 살 수 없으니, 토산 서당팥에 좌정하여 제향을 받으라 하였다. 부름운님과 신중부인이 부모에게 하직하고 집을 나섰다. 이때 신중부인은 부름운님을 먼저 보내고 한라산을 구경하러 갔다. 구경 다니다가 목이 말라 돼지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대로 빨아먹는데, 돼지털이 콧구멍에 들어 불로 그슬리니 돼지

고기를 먹은 듯하였다. 서당팥으로 가니 부름운님이 날핏내가 나니 부정하다 하며 마라도로 귀양을 보내었다. 부름운님은 저산국 따님 새로금상을 후처로 맞이하였다. 새로금상이 전처가 마라도로 귀양간 사실을 알고, 귀양을 풀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직접 마라도로 가보았더니 신중부인이 아기 일곱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새로금상은 사정을 이야기 하고 아기들을 데리고 먼저 출발하고, 신중부인더러 고동을 잡아먹으며 천천히 오라고 하였다.

새로금상은 산방산에 이르렀을 때 한 선비가 새로금상의 인물이 좋아 붙잡으려 하니 급히 달려 서당팥으로 갔다. 아이들을 확인해 보니 하나가 없어 급히 남장을 하고 되돌아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신중부인에게 맡겼다.

### ③ 특징

박생옥 심방 구연본이다. 전형적인 송당계 본풀이의 서사맥락을 갖추었다. 신중부인은 용왕황제국 막내딸이면서 주술적인 능력을 지녔고, 일곱 아기를 낳았으며,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존재이니 이렛당신의 면모에 부합한다.

이 자료 말미에는 신직이 분명히 처리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 ④ 핵심어

송당, 금백조, 소천국, 용왕황제국, 상자, 신중부인, 돼지발자국, 돼지털, 저산국 따님, 새로금상, 서당팥, 토산1리, 토산본향당, 느진덕정하님, 부름운님

### ⑤ 원전 서지사항

웃당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⑥ 관련 자료

토산일렛당본풀이(현용준 · 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